

근대역사문화 콘텐츠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군산시-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문화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예술, 콘텐츠스테이션' 및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구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와 진흥원은 AR, VR,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근대역사체험존을 구축하고 게임, 멀티미디어 등 문화콘텐츠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콘텐츠스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예술, 콘텐츠스테이션' 구축사업은 정부 추경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금암동 구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문화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예술, 콘텐츠스테이션' 및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구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예술, 문화, 콘텐츠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문화재 제600호인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 추진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구축사업은 근대 역사문화 유산을 홀로그램 기술과 연계하여 공연, 교육, 전시까지 가능한 테마파크를 구축하는 정부 추경사업으로, 시간여행 마을에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단발적인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진흥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全羅日報

2018년 12월 03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맞손'

근대역사 연계 '문화산업 육성' 합심

예술·홀로그램 체험존 등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군산활성 전망

군산시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손잡고 군산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달 30일 근대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예술 및 콘텐츠스테이션' '홀로그램 콘텐츠체험존' 구축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에 따라 군산시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AR, VR,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근대역사체험 존을 구축하고 게임과 멀티미디어 등 문화콘텐츠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콘텐츠스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사업은 정부 추경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금암동 옛 수협창고를 보수해 예술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 문화산업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또 근대 역사문화 유산을 홀로그램 기술과 연계해 공연, 교육, 전시까지 가능한 테마파크를 구축하는 정부 추경 사업으로 등록문화재 제600호인 옛 조선 식량 영단 군산출장소에 추진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구축사업은 시간 여행 마을에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단발적인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진흥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강경창기자·kang@

全羅日報

2018년 12월 03일 월요일
007면 지역

서민금융지원센터 군산서 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12월 중 군산시에서 문을 연다. 군산시는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등 모든 서민금융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12월 중 문을 열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군산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될 경우 지역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금융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담 수요에 따라 근무 인원 및 직제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상담과 고용 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창업과 사업운영, 생활안정 등 필요자금을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 지원, 생계자금 대출 보증 지원 등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1명, 신용회복위원회 1명, 미소금융 2명 등 모두 4명의 상담사가 상주하게 된다. /군산=임태영기자·kukuk79@

군산지역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기반 다진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군산시 업무협약 체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예술콘텐츠스테이션 조성

군산지역 문화, 예술, 콘텐츠 산업 기반이 구축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군산시가 지난달 30일 군산지역 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과 예술콘텐츠스테이션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은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舊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등록문화재 제600호)에 근대역사문화를 홀로그램 기술과 연계해 공연, 교육, 전시가 가능한 디지털 테마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에 7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군산시의 근대역사문화유산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체험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험존은 등록문화재와의 융합을 통해 콘텐츠 상영관, 근대역사 전시관, 첨단콘텐츠 체험관 등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사업은 첨단콘텐츠 제작과 공간 구성을 위해 용역공고 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은 다음달 용역사 선정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완료해 5월 중 체험존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군산예술콘텐츠스테이션 조성사업은 해마다 감소하는 군산지역 청년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콘텐츠 분야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총 90억 원의 예산이 반영, 현재 1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예술콘텐츠스테이션은 군산시 금암



지난달 30일 군산시와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모습.

동 舊수협공관장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 예술 콘텐츠 산업 분야 창작자 및 예비창업자의 교육, 육성, 입주지원, 판로개척 등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창작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 운영을 맡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최용석 원장은 “실감콘텐츠 근대역사체험존 구축과 문화콘텐츠 창업전문의 콘텐츠스테이션 조

성으로 군산지역 경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군산시는 협약을 통해서 군산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존 및 문화·예술 콘텐츠 창업전문 거점 구축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석현 기자

새만금일보

2018년 12월 03일 월요일 007면 지역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구축

군산시, 문화산업 활성화 위해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MOU 체결... 첨단기술 활용
예술·콘텐츠스테이션 등 조성

군산시가 근대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문화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예술·콘텐츠스테이션' 및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구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와 진흥원은 AR, VR,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근대역사체험존을 구축하고 게임, 멀티미디어 등 문화콘텐츠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콘텐츠스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사업은 정부 추경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금암동 구)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해 예술·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을 유치하



군산시가 근대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문화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예술·콘텐츠스테이션' 및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구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 육성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문화재 제600호인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 추진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구축사업은 근대 역사문화 유산을 홀로그램 기술과 연계해 공연·교육·전시까지 가능한 테마파크를 구축하는 정부 추경사업으로 시간여행마을에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단발적인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진흥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j1323@hanmail.net

군산 구도심에 '디지털 테마파크'

도-군산시, 업무협약 맺고 160억 공동 투자
홀로그램 체험존 만들고 콘텐츠 창업자 육성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 기대

◆군산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구분	사업비	거점지	주요 사업내용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70억원	영화동 옛 조선사립학교인 군산출장소	카툰타 리모델링 라이브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 콘서트장-전시관-세련관 구축 관련 콘텐츠 개발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90억원	금암동 옛 수협 창고	가상지 리모델링 콘텐츠 창작 작업 인프라 조성 관련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등

7층기 신축도

정성화 기자

군산 구도심에 디지털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관련기사 8면>
근대역사를 홀로그램과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군산시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협

약을 맺고 총 160억 원을 공동 투자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가칭 '군산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을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홀로그램과 증강현실을 접목해 근대역사를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상영관과 전시관 등을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 입지는 영화동 근대역사지구 내에 있는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로 정해졌다. 사업비는 약 70억원, 개관일은 내년 5월로 잡혔

다. 양측은 또, 가칭 '군산예술콘텐츠스테이션'도 조성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모아 교육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거점지가 될 스테이션은 금암동 옛 수협 창고가 꼽혔다. 약 90억 원을 투자해 수협창고를 창업교육을 겸한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프로그램은 2020년 5월까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됐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두 시설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최용석 원장은 "두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산경제 생태계도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업은 조선과 자동차 등 기간산업 붕괴로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동시에 된 군산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로 기획됐다.

대전북신문

2018년 12월 03일 월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홀로그램 문화체험존' 구축

박상래 기자

군산시는 지난달 30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예술·콘텐츠스테이션' 및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구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근대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문화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와 진흥원은 AR, VR,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근대역사체험존을 구축하고 게임, 멀티미디어 등 문화콘텐츠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콘텐츠스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사업'은 정부 추경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금암동(구)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해 예술·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문화재 제600호인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



장소에 추진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구축사업'은 근대 역사문화 유산을 홀로그램 기술과 연계하여 공연·교육·전시까지 가능한 테마파크를 구축하는 정부 추경사업으로, 시간여행마을에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

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단발적인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진흥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상인-행정 삼박자 '지역 상권 살리기'

군산시가 조선·자동차 산업의 붐으로 침체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화폐를 도입했다.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기 위해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민의 구매 열풍에 힘입어 전국적인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발행 3개월 만에 판매된 금액만 해도 5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역 내부에서 지역경제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에 군산지역 화폐의 실험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전망에 대해 짚어 본다.

군산사랑상품권, 지역경제 도움될까

① 도입과 초기 성과

가맹점·참여 의지 높고 행정 홍보 뒷받침 3개월만에 500억 실적...개인판매가 95%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자본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2004년 지역 상품권 발행을 시작한 후 전국 50여 곳의 지자체에서 판매된 총금액은 지난해 기준 3100억 규모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판매된 지역 상품권은 공공기관과 법인, 단체의 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의 경우 지역 상품권이 가장 많이 팔린 2015년(판매액 200억 원)의 경우 지역 내 조선업체에서 140억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선

사의 구매 금액을 제외하면 일반 구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을 넘은 경우가 없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2011년 제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37억 원 중 개인 구매액은 전체 구매액의 40% 수준인 51억 원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포함시의 경우 매월 100억 원가량 판매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포스코가 23억 원에 달하는 포함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군산사랑상품권은 11월 현재 총 판매액 529억 원 중 개인 판매 비중이 95%에 달하고 공공기관,

법인 등의 비중은 5% 이내에 불과하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시민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군산지역의 가맹점 가입점포는 7600여 개다. 군산 인구와 비슷한 거제시는 2018년 9월까지 불과 1750여 개로 조사됐다. 10여 년 전부터 지역 상품권 유통을 시작한 거제시 가맹점 점포 수보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군산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높은 가맹점 가입률은 상품권 사용 범위가 넓고,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권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상인과 시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다.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이전부터

시민과 상인들은 SNS를 통해 가맹점 가입 동참 릴레이 운동을 벌여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 상권 회생을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은 상품권 구매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산이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받고 주력 기업들의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민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절박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군산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정책이 뒷받침됐다.

군산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상품권을 홍보하고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강임준 시장과 공무원들이 직접 상가를 방문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갔다. 또한 거주지 내 가맹점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가맹점 확대 등을 지속해서 꾀했고, 환전 지급일을 판매 다음 날로 지정해 상품권 순환을 앞당겼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북도민일보

2018년 12월 03일 월요일 002면 종합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군산시가 지난달 30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제공

“우리 역사문화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군산시-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

홀로그램 체험존 운영 등 MOU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군산시가 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손을 잡았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달 30일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과 ‘예술콘텐츠스테이션’ 사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은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내에 있는 조선 식량영단군산출장소(등록문화재 제

600호)에 근대역사 문화를 홀로그램 기술과 연계해 공연과 교육, 전시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올 정부는 70억 원의 추정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첨단콘텐츠 제작과 공간 구성을 위해 용역공고 중이다. 용역은 다음 달 용역사 선정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완료해 5월 중 체험존 개관식을 할 예정이다.

예술콘텐츠스테이션 조성사업은 해마다 감소하는 군산지역 청년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콘텐츠 분야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간 총 9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 1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진흥원은 이 사업들의 운영을 맡게 됐다. 앞으로 진흥원과 군산시는 협약을 통해 군산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존 및 문화·예술 콘텐츠 창업전문 거점 구축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용석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원장은 “실감콘텐츠 근대역사 체험존 구축과 문화콘텐츠 창업전문 콘텐츠스테이션 조성으로 군산지역 경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